

2014

EAI 동 아 시 아 연 구 원

2015



# EAI

동아시아연구원

2014-2015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을지로4가, 삼풍빌딩)

전화 02 2277 1683

팩스 02 2277 1684/1697

www.eai.or.kr

eai@eai.or.kr

## 이사장

하영선

## 이사

강은모 강찬수 공유식 김동건 김은선  
김 준 박경수 박상용 박진원 박찬근  
선승훈 여동찬 유창수 임현진 장진호  
조상호 최철원 홍석현

## 감사

신영준 장동우

## 원장

이숙종

## 센터소장

손 열 이내영 이동률 이재열 전재성 주형민

## JEAS 편집주간

스테판 해거드

## 연구원

김가현 김보미 박미영 배진석 백혜영  
서희정 신영환 안현정 유재승 최수이  
벤자민 앵겔



## 이사장 메시지

청소년기에 접어든 EAI는 지난 2년 동안도 한국의 EAI에서 아시아의 EAI로 몰라보게 부쩍 컸습니다. 국내외에서 지적 아이돌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고 한편으로는 조심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EAI를 겸손하게 성찰하고 세계의 EAI라는 새로운 내일을 준비할 때입니다.

21세기는 동아시아의 세기입니다. 그러나 ‘동아시아 바로보기’와 ‘동아시아 바로 품기’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의 빠른 부상과 함께 근대적 서양의 단안單眼만으로 동아시아를 제대로 읽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전통적 동양의 단안만으로 동아시아를 새롭게 읽을 수도 없습니다. 그 속에서 EAI는 동양과 서양의 복안複眼으로 동아시아를 제대로 바라다보고 또 품어보려는 실험과 노력을 외롭게 계속해 왔습니다. 동아시아와 한반도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발신하기 시작했고 국내외의 수신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지식혁명의 세기입니다. 인류역사는 종교혁명, 정치혁명, 산업혁명을 거쳐 본격적인 지식혁명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싱크탱크는 세기의 꽃으로 화려하게 만개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눈에 띄는 대부분의 화려한 꽃들은 거대한 경제권력이나 정치권력의 풍요로운 토양 위에서 피고 있습니다. EAI라는 작지만 아름다운 꽃이 국내외의 많은 사람들 눈에 유난히 띄는 것은 특정한 대기업이나 정부의 집중적인 도움 없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지만 미래지향적인 후원모임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는 EAI는 거대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고 존경 받는 지식권력의 등대지기 역할을 해 보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네트워크의 세기입니다. 중견국 한국의 EAI는 미국의 비대한 싱크탱크들과는 달리 날씬한 싱크탱크를 지향해 왔습니다. 살빼기의 비결은 그물망 조직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물망을 새롭게 짜서 삶의 공간을 무한대로 확대하는 거미처럼 EAI는 빠르게 변화하는 21세기 신지식의 수요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국내외 첨단 지식인들을 그물망으로 연결해서 새로운 연구 결과를 생산해 왔습니다. 초대형 싱크탱크가 활동할 수 있는 미국의 지식질서와 전혀 다른 풍토의 한국 및 동아시아 지식 질서에서 싱크탱크를 회사보다는 가족 같은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최소한의 스태프들과 세계 수준의 넓고 깊은 지식 그물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려는 EAI의 시도는 21세기 싱크탱크의 새로운 표준으로 국내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EAI는 걸음마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후원회의 따뜻한 사랑과 원장을 비롯한 연구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끊임없이 새롭게 엮어지는 EAI의 지적 그물망은 EAI를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식의 보고로 계속 키워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 원장 메시지

EAI는 2002년 설립 이래 한국의 대표적 민간 연구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수행한 여러 가지 사업을 정리한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구원의 활동은 연구, 컨퍼런스, 교육 3개 사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연구기관으로서 본연의 연구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및 동아시아 안보연구, 북한과 통일연구, 중견국연구, 일본연구, 중국연구, 공공외교연구, 정체성연구, 사회적책임연구 등을 수행했습니다. 중견국연구는 시카고 소재 맥아더 재단의 지원을 받아 부상하는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다자외교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5년 주기로 계속 해 온 대표적 EAI 연구과제인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는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및 중앙일보와 협력해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토대로 한 연구물이 책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통일문제와 관련해서는 SBS와 협력하여 탈북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날로 중요해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해서는 글로벌 스캔과 수년간 해오던 여론조사에 이어 한국고등교육재단과 함께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관계의 복원을 돕고자 과제팀을 만들어 그 결과를 출판하였습니다.

EAI는 지난 2년간 한국 정부와 해외 기관들과 컨퍼런스와 네트워킹을 활발히 했습니다. 작년에는 통일부의 한반도 국제포럼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내외에서 남북한 통일의 의의를 설명하고 국제적 지지를 얻으려 노력했습니다. 올해에는 통일준비위원회와 함께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협력’이란 컨퍼런스를 주최해 통일의 안보, 경제, 환경적 가치를 알리려 했습니다. 일본의 言論NPO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에 근거한 한일미래대화를 재작년에 이어 지난 두 해 서울과 동경을 오가며 주최하였는데, EAI의 오랜 파트너 기관인 미국의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도 여론조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EAI는 또한 국제무대에서 한국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가 주관하는 싱크탱크 협의회인 ‘Council of Councils’에 한국을 대표해 참여해오고 있으며, ‘아시아민주주의연구네트워크Asia Democracy Research Network’를 창립해 대표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게 되면서 미국 민주주의 재단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의 지원으로 미얀마 연구기관들의 연구역량을 도와주는 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된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였습니다.

최근 수년간 EAI는 교육 및 장학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재단과 함께 국내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KF-EAI 코리아 프렌드십》을 비롯하여 인턴십, 사랑방 대학원생 세미나, 영어 에세이 공모전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작년부터는 장학사업도 시작하였습니다. 해외 학자들의 연구를 지원하는 EAI 펠로우십은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학술지 출간을 통해 넓은 아카데미아로 연결되는 노력도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EAI의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참여 학자 및 전문가, 파트너 기관,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원이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대한민국 외교안보 싱크탱크 순위

대한민국 외교안보 싱크탱크 순위는 한경비즈니스가 매년 발표하는 '대한민국 100대 싱크탱크'를 참고한 것입니다. 이는 국내 유일의 싱크탱크 랭킹 조사로 경제·산업, 정치·사회, 외교·안보, 여성·노동, 환경 총 5개 부문에서 최고의 싱크탱크를 가리고 있습니다. EAI는 동 조사가 실시된 2008년부터 7년 연속 외교·안보 분야 상위권에 선정되었습니다.

2010 7

2011 7

2014 5

2013 5

2012 5

대한민국 싱크탱크 26개 중 7위

대한민국 싱크탱크 26개 중 7위

대한민국 싱크탱크 28개 중 5위

대한민국 싱크탱크 27개 중 5위

대한민국 싱크탱크 27개 중 5위

## 글로벌 싱크탱크 순위

글로벌 싱크탱크 순위는 펜실베니아대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 Think Tank and Civil Society Program' 이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 싱크탱크 인덱스 Global Go To Think Tank Index' 를 참고한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 싱크탱크의 역량을 증진시키고 싱크탱크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EAI는 2012년 이래 국내 민간 싱크탱크로서는 유일하게 3년 연속 세계 100대 싱크탱크에 선정되었습니다.

12 2010

아시아 지역 싱크탱크 1200개 중 12위

22 2011

아시아 지역 싱크탱크 1198개 중 22위

글로벌 싱크탱크 6618개 중 60위

60 2014

글로벌 싱크탱크 6826개 중 65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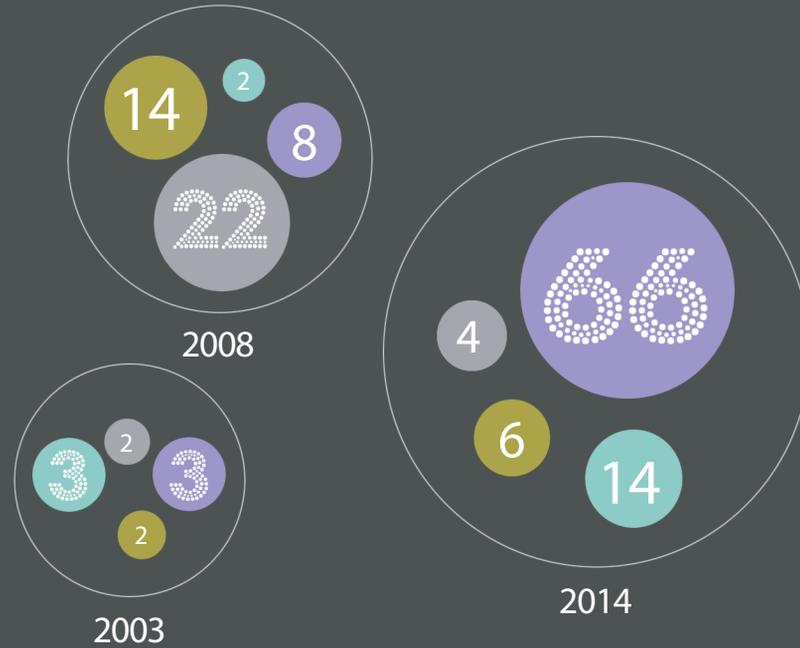
글로벌 싱크탱크 6603개 중 65위

65 2013

65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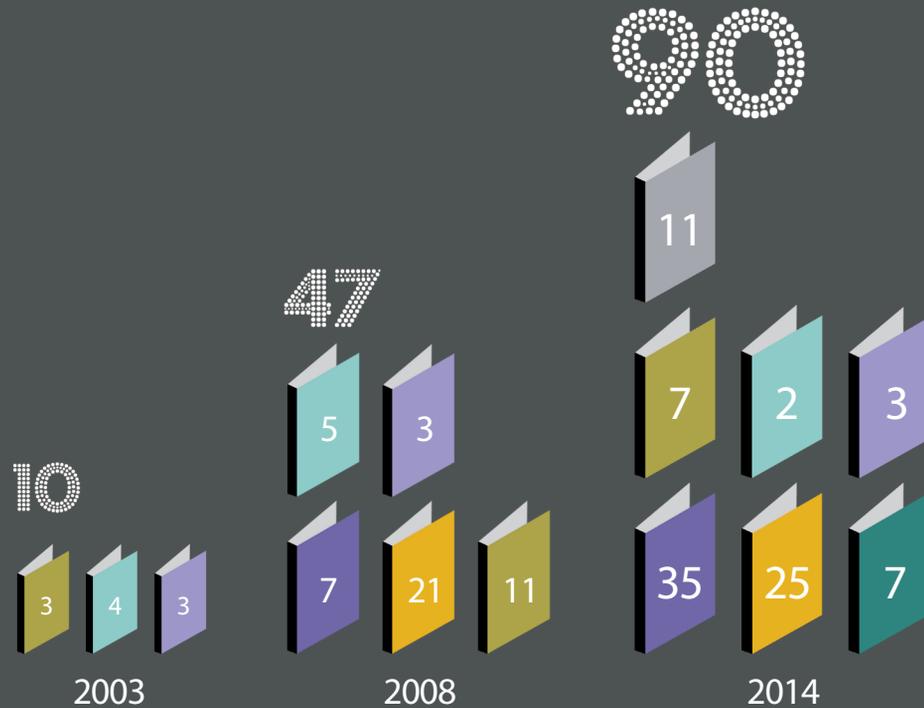
## 연구사업

- 외교안보
- 거버넌스
- 여론분석
- 펠로우십/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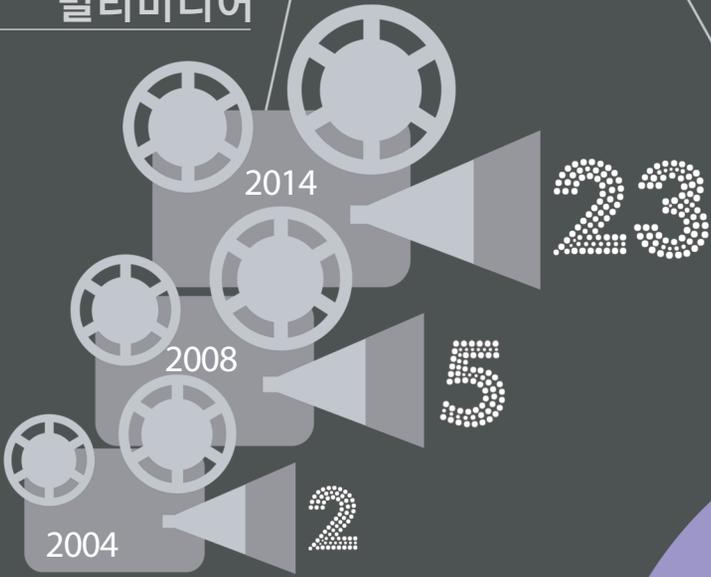
## 출판

- 연구보고서
- 쟁점 브리핑
- EAI 논평
- 회의록/요약문
- 단행본
- JEAS
- 스마트 Q&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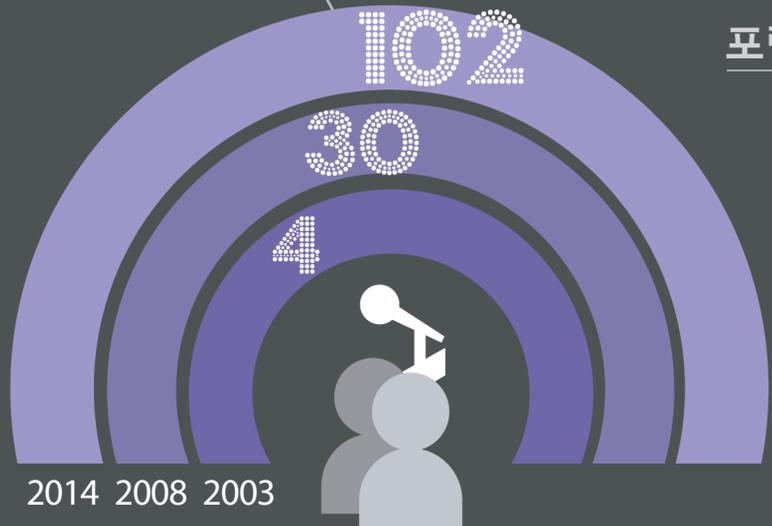




멀티미디어



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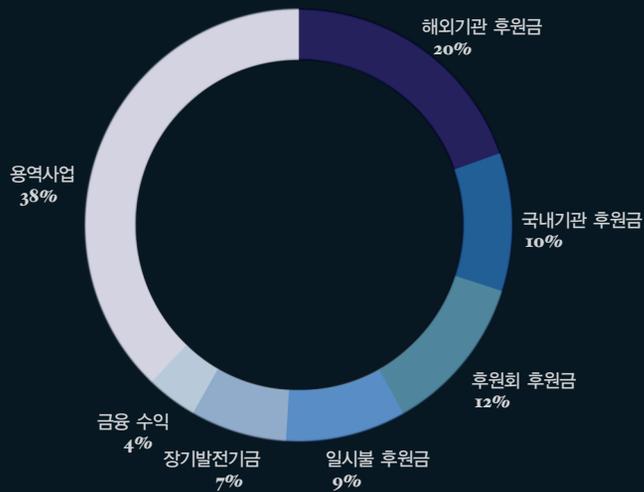
2014 2008 2003

# EAI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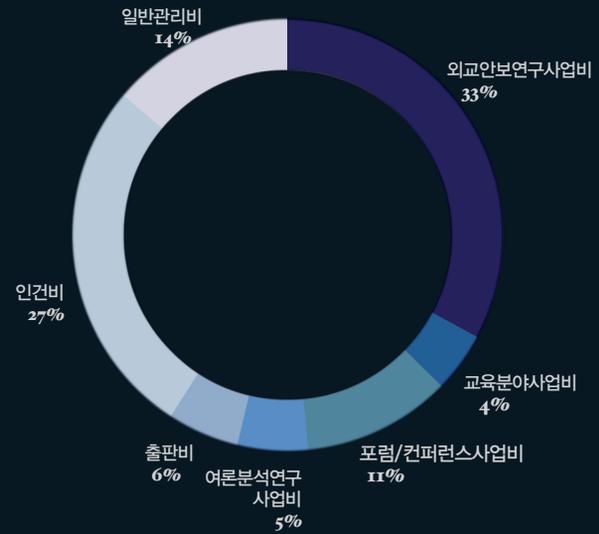


## 2013년

수입 1,394,821,265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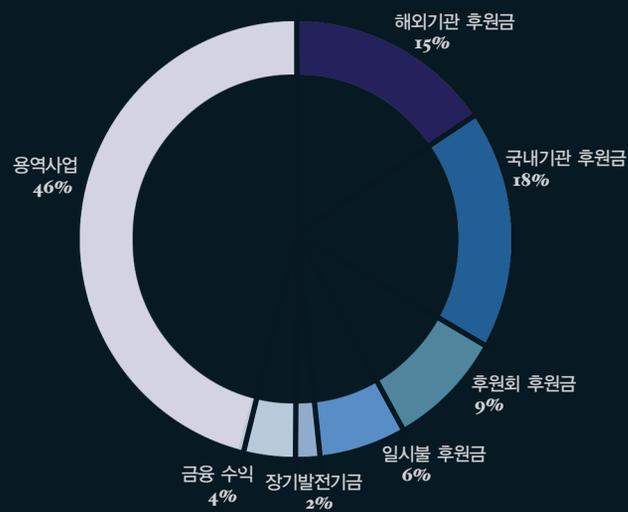


지출 1,622,219,133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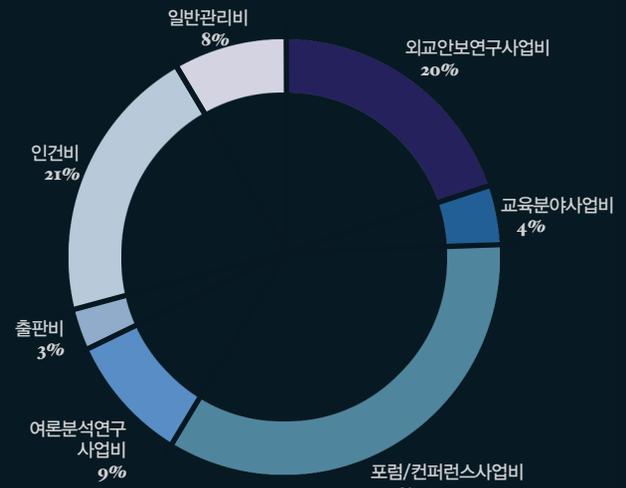


## 2014년

수입 2,336,381,126원



지출 2,033,838,543원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목  
차

EAI 2014-2015

이사장 인사말

원장 인사말

숫자로 말하는 EAI

짜다 織 외교안보  
I4

짓다 案 거버넌스  
I8

묻다 問 여론분석  
22

잇다 絡 지식확산  
26

열다 開 인재육성  
30

품다 懷 희망후원  
34

EAI 출판

EAI 커뮤니티

EAI 발자취

EAI 사람들

# 짜다織 외교안보



**EAI** 는 짜고자織 했습니다. 중견국中堅國 대한민국  
의 변영전략을.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국제  
무대에서 창성昌盛하는 중견국들은 하나같이 치밀한 세계  
전략을 설계합니다. 갈등하는 강대국을 중재하고 신음하는  
약소국을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자임하는 일은 번창繁昌하  
는 중견국의 시대적 소명입니다. 탈냉전 이후 한국이 직면  
한 현실을 분석하고 나아가야 할 미래를 조망하여 국가 대  
전략을 수립하는 과제가 외교안보 연구의 중핵으로 떠오르  
는 까닭입니다.

국가안보패널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데탕트와 탈냉전을 비  
교 연구하는 작업을 2012년부터 시작하여 그 결과물을  
《1972 한반도와 주변4강 2014》(2015. 5)에 담았습니다.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소련이라는 여섯 대의 카메  
라를 사용하여 1972년 한반도 미니 데탕트의 좌절과 2014  
년 한반도 탈냉전의 어려움을 대비적으로 촬영하여 한반도  
의 진면목이 고스란히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2.0 : 억제, 관여, 신뢰의 복합 추진》(2014. 5)은 신  
대북정책연구팀이 12개월에 걸쳐 고민한 결과를 담은 단행  
본입니다. 한국의 신뢰프로세스, 북한의 병진노선, 주변국  
들의 동아시아 신질서 건축구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  
고, 그것을 복합적으로 결합시키려는 노력 없이는 남북한  
의 적대관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길을 찾지 못한다고 진단  
합니다. 외교부와 함께 연 《통일한국의 외교비전과 동아  
시아의 미래》 국제회의(2014. 6)에서는 EAI가 탐구해 온  
한국의 통일외교안보 전략구상을 해외의 석학들과 나누  
었습니다.

전근대, 근대, 탈근대의 시간 복합성과 국제, 지역, 한반도  
라는 공간 복합성을 정연井然하게 버무려 중견국 한국의 침  
로針路를 발견하려는 시도는 중견국 외교 연구패널이 맡았  
습니다. 맥아더 재단이 후원한 《중견국 외교 포럼》(2014. 10)  
에 모인 국내외 전문가들은 미중관계의 맥락 속에서 중견  
국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외교부

와 함께 한 《한국 중장기 외교전략의 평가 및 발전방안》 컨  
퍼런스(2015. 10)에서 펼쳐진 한국외교의 현 주소에 대한 토  
론은 한국 중장기 외교전략 연구팀의 성과를 널리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중견국이 맡아야 할 중요한 과제의 하나인  
정부개발원조는 국무총리실의 용역을 수혜受惠한 정부개발  
원조 중점협력국 재조정 방안 연구팀과 대규모 정부개발원  
조 프로젝트 사후관리 실태평가 연구팀이 맡아 그 문제점  
을 진단했습니다.

한국 해로海路연구회 및 한국 해양과학 기술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동아시아 해양 분쟁과 해법》 컨퍼런스(2014. 5)와  
《해양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전망과 과제》 컨퍼런스(2015.  
7)는 국제협력의 주요 분야인 해양에서 동북아 역내 국가들  
의 갈등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를 다루었습니다. 시카  
고국제문제협의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한미동맹 : 대통령  
의 의제》 세미나(2015. 10) 및 샌프란시스코 아시아소사이어  
티와 공동으로 마련한 《무역의 아키텍처 : 아시아와 경제  
통합의 미래》 세미나(2015. 10)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어젠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미국의 역할, 중국 부상이  
가지는 지정학적인 함의, 한국 정부의 TPP 타결이 아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 역내 무역협정 현황 및 지정학  
적 함의, 경제통합의 전망, 한국을 포함한 중견국들의 역할  
등을 주제로 한미 지식인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새해가 밝아오면 《외교안보현안 라운드 테이블》(2014. 1)과  
《한국외교 포지셔닝 전략회의》(2015. 1)의 전례에 따라 EAI는  
외교안보 연구역량을 집결하여 한국 외교안보 정책이 나아  
가야 할 방향을 소묘素描하는 작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



2015년 11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협력” 컨퍼런스, 한승주 전 외무장관  
 2014년 9월 한반도 국제포럼 “신뢰, 평화, 번영 : 한반도 통일의 길” 국제회의,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2015년 4월 제26회 지구넷 21 포럼,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  
 2015년 7월 “해양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전망과 과제” 컨퍼런스



2015년 10월 "대미 공공외교 강화를 위한 한미공동 컨퍼런스" 샌프란시스코 세미나, 김은식 외교부 에너지원대사, 이승주 중앙대 교수  
 2014년 12월 "Is the American Century Over?" 특별강연회,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 김병국 고려대 교수  
 2014년 12월 한반도 국제포럼 워싱턴 회의,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  
 2015년 10월 "한국 중장기 외교전략의 평가 및 발전방안" 컨퍼런스, 김창수 KIDA 책임연구위원, 마상윤 가톨릭대 교수, 신범철 외교부 정책기획관,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  
 2015년 11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협력" 컨퍼런스

# 짓다 築 거버넌스



**EAI** 는 짓고자築 했습니다. 민주주의와 통일의 글로벌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한국 민주주의는 세계인이 선망할 만한 성공사례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세계인이 주목하는 역사적 전환점에 해당합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경험과 통일의 구상을 세계로 전파傳播하는 일이 거버넌스 연구의 중심과제로 떠오르는 연유입니다.

EAI는 민주주의 전파를 목적으로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 싱가포르 회의(2014. 2), 타이페이 회의(2014. 9), 뉴델리 회의(2015. 3)에 능동적으로 참가했습니다. 서울에서 개최한 《민주국가들의 공동체 강화하기》 국제회의(2014. 11)는 글로벌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노력이 하나의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2015년 엘살바도르 민주국가들의 공동체 각료회의에 제안할 의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EAI는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교육, 시민사회 강화, 투명성, 선거와 관련하여 한국 민주주의의 성과를 적시하고 그 적용 가능성을 살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 있는 《민주주의 부흥을 위한 시민사회 강화하기》를 테마로 한 세계민주주의운동 World Movement for Democracy 서울총회(2015. 11)는 EAI의 민주주의 전파 활동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전개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100개국 45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총회의 공동 주관기관으로서 EAI는 참가자 전원이 참석하는 본회의와 중요 패널회의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교훈을 세계인과 널리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미얀마 시민사회 역량강화》 프로그램(2015. 8-9)은 EAI를 성공사례로 삼아 미얀마 싱크탱크의 조직 및 연구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려는 기획입니다. 2014년 7월 양곤 방문을 기회로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미국 민주주의 재단이 후원하고, 미얀마 산디 거버넌스 연구소, 르네상스 연구소, 오픈 미얀마 이니셔티브, 양곤 정치학교가 참여하는 또 하나의 글로벌 거버넌스 네트워크입니다. EAI 상근직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직접 전수하여 현지 싱크탱크의 조직 및 연구역량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전파 활동의 획기적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서울을 기점으로 싱가포르,

타이페이, 뉴델리로 펼쳐진 EAI의 민주주의 거버넌스 네트워크는 양곤에 그 뿌리를 깊숙이 내렸습니다.

통일부는 2014년도 한반도 국제포럼의 주관기관으로 EAI를 선정했습니다. 베이징 회의(2014. 5), 도쿄 회의(2014. 6), 브뤼셀 회의(2014. 10), 워싱턴 회의(2014. 12) 등 대륙과 해양을 넘나들면서 펼쳐진 세계 석학들과의 통일 대화는 한국인의 통일 청사진을 세계인에게 알리고, 세계인의 통일 조감도를 한국인에게 나르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지역순회 회의를 바탕으로 개최한 《신뢰, 평화, 번영 : 한반도 통일의 길》 국제포럼(2014. 9)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의 정책결정자 및 전문 연구자들이 참석하여 EAI 통일 거버넌스 네트워크의 출범을 알렸습니다. 한국인의 통일 구상과 세계인의 통일 관심이 맞닿으면서 펼쳐놓은 논의들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협력》 컨퍼런스(2015. 11)로 이어집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스위스 등 주요 국가의 고위관료와 저명학자가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생각을 듣고 의견을 나누고자 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컨퍼런스의 주관기관인 EAI는 한국인의 통일 구상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세계인의 마음 속에 투영하고, 세계인의 통일 관심을 더욱 세밀하게 정제하여 한국인의 뇌리에 각인하는 작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통일 거버넌스 네트워크의 기점이 세계인이란다면 그 종점이 북한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SBS가 특집 프로그램으로 방영한 《남북청년통일실험 : 어서 오시라요》(2015. 8)는 2017년까지 이어질 EAI “통일한국 통합방안 연구”의 중간 결과물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는 통일에는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다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서울을 출항한 통일 거버넌스 네트워크가 베이징, 도쿄, 브뤼셀, 워싱턴을 돌아 마침내 평양에 그 닻을 내리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를 묻는 일은 EAI의 다음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



동아시아 지역질서 변화와 한반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 모색  
2014. 5. 23 北京 베이징



- 2014년 11월 "Empowering Community of Democracies" 국제회의, 칼 거쉬만 미국 민주주의 재단 회장, 마리아 라이스너 민주주의 공동체 사무총장, 이숙중 EAI 원장
- 2015년 11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협력" 컨퍼런스, 장 폴 페텍 세계자연보호기금 본부 국제협력국장
- 2015년 11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협력" 컨퍼런스,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
- 2015년 11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협력" 컨퍼런스,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
- 2014년 5월 한반도 국제포럼 베이징 회의



2014년 9월 한반도 국제포럼 "신뢰, 평화, 번영 : 한반도 통일의 길" 국제회의, 류길재 통일부 장관  
 2015년 11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협력" 컨퍼런스, 홍영표 통일부 장관  
 2014년 8월 통일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 (출처: 통일준비위원회)  
 2015년 9월 미안마 시민사회 역량강화 양곤 제2차 워크샵

문다問

여론분석



**EAI**는 묻고자問 했습니다. 국가의 역사적 책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친일親日과 반일反日은 한일관계를 바라보는 국민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한국의 기업을 대하는 국민 정서는 친기업親企業과 반기업反企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한일관계와 한국의 기업에 대한 국민인식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는 일이 여론분석 연구의 핵심과제로 자리잡은 이유입니다.

국가의 역사적 책임을 풀어낼 열쇠말로 “공진共進을 통한 화해”라는 화두를 던지는 작업에 고스란히 3년이라는 세월을 흘려 보냈습니다. 2005년과 2010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한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는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및 중앙일보와 함께 한국인이 자국과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알아보는 연구원의 대표적 여론분석 과제입니다. 이제 비교를 통해 지난 10년 간 나타난 민족성, 시민성, 역사 및 대외 안보인식 등 주요 분야에서 국가 정체성의 변화와 지속성을 추적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축적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일본 진론言論NPO와 공동으로 수행한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의 제2차(2014. 7) 및 제3차(2015. 5) 관측 결과는 한일 양국의 현안을 둘러싼 두 나라 국민들의 심성心性의 모양새가 온전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일본 정부의 진솔한 사과가 화해의 전제조건이라는 생각을 공고화하고, 일본인은 한국정부의 거듭된 사과요구에 현기증을 느끼는 악순환에 빠져들어버린 형상입니다. 서울과 도쿄에서 번갈아 열린 한일미래대화 제2차(2014. 7) 및 제3차(2015. 6) 회의석상에서 펼쳐진 양국 유식자有識者의 대화는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고 한일 양국의 시민들이 화해와 협력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미경을 통해 본 사태의 양상이 심상치 않다는 진단에 따라 보다 정밀한 망원경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국가 정체성에 지역 정체성을 결합하여 감정 대결을 완화하고, 배타적 민족주의를 넘어 지구적 민족주의를 공생의 원리로 수용하자는 내용을 담은 특별보고서 《신시대를 위한 한일의 공동진화》(2015. 8)는 그래서 “공진을 통한 화해”라는 패러다임으로 한일관계의 전환을 촉

구합니다. 공진의 철리哲理 속에서 과거사를 정리하고 다가오는 미래사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는 과정에서 한일 양국이 역사적 책임을 완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고등교육재단과 더불어 개최한 《한일수교 50년, 한일관계의 재조명》(2015. 9)세미나와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 켄론 NPO, 중국 HRCG와 공동으로 도쿄에서 개최한 《동북아시아의 미래와 7000명의 목소리》(2015. 10) 국제 세미나에서 EAI는 공진을 통한 화해라는 아이디어를 안과 밖의 석학들과 나누었습니다.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s”이라는 열쇠말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연구의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는 작업에도 꼬박 3년이 걸렸습니다. 우선 문제의 양상을 정확히 드러낼 현미경이 필요했습니다. 2013년부터 한국고등교육재단 산하 사회적기업연구소와 공동으로 참여한 《글로벌 스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제여론조사》의 두 번째 관측결과(2014. 2)는 바로 그 현미경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총 17,589명(한국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발굴한 기업에 대한 국민인식 자료는 한국 기업이 국제비교 차원에서 갖는 특이성을 오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료라는 나무를 이론이라는 숲의 맥락 속으로 불러들여 분석의 깊이를 더하려는 일에는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담당할 것은 《사회적 책임, 사회적 기업》(2015. 6)을 집필한 연구진입니다. 그들은 책임경영 패러다임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공유가치창출로 전환하는 흐름 속에서 ‘기업의 사회적 기업화’와 ‘지속가능한 책임경영 생태계 모델’을 제안합니다. 기업, 정부, 시민사회가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적 거버넌스 주도 하에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는 혁신역량을 갖춘 사회적 기업가가 책임경영 생태계의 주인공으로 우뚝 섰을 때 새로운 차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



- 2014년 7월 제2회 한일미래대화,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이홍구 전 국무총리, 이숙중 EAI 원장, 쿠도 야스시 겐론NPO대표, 카와구치 요리코 전 외무대신
- 2015년 10월 "(주)서울특별시의 비전" 특별 강연회, 박원순 서울시장
- 2015년 8월 SBS 스페셜 "남북청년통일실험 : 어서 오시라요" (출처 : SBS)
- 2014년 7월 제2회 한일미래대화, 신각수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소장, 오구라 카즈오 겐론NPO지문위원
- 2014년 7월 "한일국민 상호인식조사" 기자회견, 이숙중 EAI 원장 (출처 : KBS)



2014년 7월 제2회 한일미래대화, 홍익표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김세연 국회의원, 김영환 국회의원  
 2015년 9월 “한일수교 50년, 한일관계의 재조명” 세미나, 정한울 EAI 수석연구원  
 2014년 7월 제2회 한일미래대화

잇다  
絡

지식확산



**EAI** 는 잇고자絡 했습니다. 싱크탱크의 지식과 공공외교의 현장을. 싱크탱크는 상아탑의 지식담론을 공론장의 정책담론으로 다듬는 일에 주력하며 내실을 다집니다. 공공외교는 싱크탱크의 정책제안이 쟁명爭鳴하는 공론장입니다. 싱크탱크의 정책 지식인과 공공외교의 시민 외교관을 다층적으로 엮어 내는 일에 지식확산 활동의 초점을 맞추는 까닭입니다.

전 세계 25개국을 대표하여 오직 26개만의 싱크탱크가 참여하는 《싱크탱크 세계평의회》는 시드니 지역회의(2014. 2), 뉴욕 연례회의(2014. 5), 뉴델리 지역회의(2015. 1), 워싱턴 연례회의(2015. 5), 이스탄불 지역회의(2015. 10)에서 한국 대표 기관으로서 EAI는 글로벌 어젠다를 논하는 공론장에서 그 역할을 독특히 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한국경제매거진과 공동으로 주최한 《한국 싱크탱크의 국제적 역할 확대》 포럼(2015. 1)에서 EAI는 일찍부터 글로벌 청자聽者를 시야에 넣고 정책제안을 발신한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책담론의 독자讀者를 일찌감치 글로벌 공론장에서 발굴한 노력 덕택에 《지구넷 21 포럼》은 주변국 대사들의 사랑채로 자리잡았습니다. 벅쇼 고로 주한일본대사(2014. 4), 추귀홍 주한중국대사(2014. 10),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2015. 4)로 이어진 포럼은 공식 외교의 장에서는 결코 터놓지 못할 대화가 진솔하게 이어졌습니다. 조용한 공공외교의 채널로는 토마스 셰퍼 주북한대사(2014. 7), 찰스 헤이 주한영국대사(2015. 6), 에릭 월시 주한캐나다대사(2015. 7), 아인질 오도노후 주한아일랜드대사(2015. 9)와 함께 한 간담회가 빛을 발했습니다. 더블린시립대와 공동으로 마련한 《한-아일랜드 평화협상 경험 공유》 세미나(2015. 10)는 아일랜드 평화협상 경험에서 남북한 화해와 통일의 실마리를 새롭게 찾아보려는 노력이었습니다.

EAI가 퍼는 공공외교의 탁상을 둘러싸고 고담준언高談峻言을 나누는 길손은 주변국 대사들만이 아닙니다. 커티스 스카

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2014. 5), 니콜라스 브레이 영국 국방부 국제정책기획국장(2014. 6), 일레인 번 미국 국방부 핵미사일 방어정책담당 부차관보(2014. 9), 그래험 플래처 호주 외교통상부 제1차관보(2015. 10) 등이 연구원을 방문하여 EAI의 전문가들과 고견을 나누고 돌아갔습니다. 오키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일본국제문제연구소 한반도 연구팀 또한 남북한 문제를 다른 분석틀로 논의하고자 연구원을 방문해 간담회(2015. 1)를 가졌습니다.

싱크탱크로서의 EAI는 상아탑과 교류하며 꾸준히 그 역량을 키워나가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고등교육재단과 함께 한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의 강연회(2014. 12)를 전후로 하여 에즈라 보겔 하버드대 명예교수(2014. 1), 리차드 부시 브루킹스 연구소 동아시아센터 소장(2014. 1), 라제쉬 탄돈 인도 아시아 참여연구회 소장(2014. 3), 에브리 고 호주국립대 교수(2014. 3), 알론 레프코위츠 이스라엘 바르-이란대 교수(2014. 4), T.J. 펠펠 캘리포니아-버클리대 교수(2014. 5), 조지 뱅크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위원(2014. 5), 앤드류 네이션 콜롬비아대 교수(2015. 3), 벤 스미스 플로리다대 교수(2015. 5) 등이 《스마트 토크》의 연사로 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조셉 워 토포토대 교수(2015. 2), 브루스 디슨 조지 워싱턴대 교수(2015. 7), 양귀빈 펜실베이니아대 교수(2015. 11)와 함께 한 《라운드 테이블》은 보다 심층적인 학술토론을 매개로 정책담론의 내실화를 꾀하고자 했습니다. 《프레스 포럼》은 윤덕민 국립외교원 원장(2014. 1)을 시작으로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2015. 10)에 이르기까지 국내 전문가 14명을 초대하여 다양한 쟁점분야의 정책담론을 어떻게 미디어가 전파할지를 살폈습니다. ■



2014년 10월 제25회 지구넷 21 포럼, 추귀홍 주한중국대사  
2014년 5월 EAI 간담회,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사령관  
2014년 4월 제24회 지구넷 21 포럼, 벅소 고로 주한일본대사  
2015년 4월 제26회 지구넷 21 포럼,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2014년 1월 에즈라 보겔 하버드대 명예교수 초청 스마트 토크  
 2014년 12월 "Is the American Century Over?" 특별강연회  
 2014년 12월 "Is the American Century Over?" 특별강연회,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

열다 開

인재육성



**EAI** 는 열고자開 했습니다. 미래한국의 찬연燦然한 문門을, 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인재를 키우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내일을 향한 소중한 희망은 재능이 넘치고 감성이 풍부한 청년들 속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EAI가 인재개발에 힘을 아끼지 않으며 교육활동을 그 중심에 놓고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연유입니다.

국제교류재단의 후원에 힘입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EAI의 교육 네트워크로 품은 《KF-EAI 코리아 프렌드십》 프로그램이 벌써 3년째를 맞았고, 2013년도 교육생들은 동창회(2014. 5)를 발족시켰습니다. 2014년도 행사(2014. 6)에는 한국 홍보전문가 서경덕, 역사학자 박태균, 소설가 김영하, 광고인 박용현, 미술평론가 이주현, 국회의원 심상정이, 2015년도 행사(2015. 9)에는 가야금 연주자 곽은아, 세계시민학교 교장 한비야, 조선일보 기자 강인신, 문학평론가 신형철 등이 연사로 나와 세계 속에 숨쉬는 한국을 이야기했습니다. 국내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여름에 개최하는 《에픽 영 리더스 컨퍼런스》(2014. 8, 2015. 8)와 코리아 프렌드십 프로그램의 일환인 《넥스트 제네레이션 컨퍼런스》(2014. 8, 2015. 10)는 나라 안팎의 청년학도들이 학문적 지혜를 겨루는 대표적 논문 공모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EAI 영 페스티벌》(2014. 8, 2015. 10)과 《KF-EAI 코리아 프렌드십 갈라》(2014. 11, 2015. 10)는 EAI의 교육활동을 총괄하는 젊은 축제의 장입니다.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매년 두 번에 나누어 열리는 《EAI 사랑방》은 미래 한국의 국제정치 전문가와 외교관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하영선 국제정치학자의 엄격한 커리큘럼에 맞추어 세미나를 진행하며, 한 학기의 강의를 마치면 후쿠오카(2014. 6, 2015. 6), 베이징(2014. 12, 2015. 12)으로 답사를 떠나 강의를 통해 배운 역사적 현장을 방문합니다.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자 결성된 EAI 여성 후원 소모임인 W1°의 회사홍捨로 조성한 《EAI 장학생》 프로그램은 2014년 5명의 대학생, 2015년 15명의 대학생을 선발하여 차세대 대한민국 인재육성을 도모합니다. 《EAI 장학생 멘토링 캠프》(2015. 2)를 개최하여 학생들 개인의 고민과 비전을 학생들 개인에게 맡겨두지 않고 멘토들과 더불어 해결하고 발전시키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2004년 8월부터 운영되어온 인턴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총 459명의 인턴을 배출했습니다. EAI 인턴은 매주 진행되는 《인턴 세미나》와 주한미군 및 주한미대사관과 함께 분기별로 진행되는 《유스 포커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EAI가 운영하는 각종 학술·정책·포럼·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안목을 갖추게 됩니다.

《펠로우즈 프로그램》은 동아시아를 전공하는 해외 신진학자에게 현장연구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목적에서 2005년부터 지속해 온 EAI의 플래그십flagship 교육사업입니다. 대만의 장경국 재단, 일본국제교류기금, 한국외국인학교의 후원을 받아 “동아시아의 평화, 거버넌스 및 발전”을 주제로 전 세계 비아시아권 정치학계 학자를 대상으로 매년 5명 내외의 EAI 펠로우를 선정합니다. 펠로우들은 서울, 북경, 상하이, 도쿄, 타이페이 등 5개의 참여기관(EAI, 북경대, 푸단대, 게이오대, 국립대만대)중 두 곳 이상을 선택 방문하여 현지 연구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EAI를 방문한 펠로우는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 국내 신진학자들과의 학술교류에 나섭니다. 카 쟁 아간소대 교수(2014. 6), 피오나 얍 호주국립대 교수(2014. 6), 이지영 아메리칸대 교수(2014. 12), 매튜 샤피로 일리노이공대 교수(2014. 12), 알렉산더 듀칼스키 더블린아일랜드국립대 교수(2015. 5), 류용욱 호주국립대 교수(2015. 5), 알렌 칼슨 코넬대 교수(2015. 6), 오승연 브린모어 칼리지 교수(2015. 6)가 그 혜택을 보았습니다. ■



2014 6-7월 KF-EAI 코리아 프렌드십 아카데미쿠스, 박웅현 광고인, 서경덕 한국홍보 전문가, 심상정 국회의원, 김영하 소설가  
 2015 9월 KF-EAI 코리아 프렌드십 아카데미쿠스, 송길영 빅 데이터 전문가, 곽은아 가야금 연주자, 최재천 국회의원, 한비아 세계시민학교 교장  
 2015년 8월 EPIK 영 리더스 컨퍼런스, 홍성표 서울대, 정가영 서울대, 김후리 코넬대, 권윤진 런던정치경제대



2014년 8월 EAI 영 페스티벌  
 2015년 6월 EAI 사랑방 일본 답사  
 2015년 10월 EAI 영 페스티벌  
 2014년 7월 KF-EAI 코리아 프렌드십 DMZ 투어

품다 懷

희망후원



**EAI** 는 품고자懷 했습니다. 후원자들의 희망을. 연구원의 재정을 지나치게 정부나 기업에 의존하면 정책연구의 자율성을 잃습니다. 시민사회의 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싱크탱크의 모델을 한국 지식시장 생태계에 전파하고 싶었습니다. 후원자들의 뜻 깊은 소망을 받아 좋은 정책담론으로 되돌려 드리려는 연유입니다.

270명 후원자 여러분의 성원은 이제 국제적 명성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대가 발표한 2014년 세계 싱크탱크 순위에 따르면, EAI는 6681개 싱크탱크 가운데 종합 60위에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만이 한국의 싱크탱크로서 EAI와 함께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이 매달 보내주시는 소중한 후원금이 정책담론으로 전환되고, 세계로 전파된 정책담론이 EAI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식담론을 정책담론으로 바꾸는 작업을 마치면 EAI는 다양한 후원처를 찾아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적극 추진합니다. 다수의 기관이 선뜻 재정지원에 나서 주었습니다. 《맥아더 재단》은 “중견국 외교 이니셔티브 프로그램”과 “스마트 토크” 및 “프레스 포럼”을 지원했습니다. “미얀마 시민사회 역량강화” 사업은 《미국 민주주의 재단》의 지원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습니 다. 펠로우즈 프로그램은 《일본 국제교류기금》, 《대만 장경국 재단》, 《YBM/한국외국인학교》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일한국대사관》과 《피에스케이》의 도움으로 “한일미래대화”를 두 차례 열 수 있었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은 KF-EAI 코리아 프렌드십 프로그램의 든든한 후원기관이었습니다. 《한국고등교육재단》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여론조사와 연구 및 출판을, 《에스비에스 문화재단》 “통일한국 통합방안 연구”를, 《한샘드뷰재단》은 “르네상스 2.0” 프로젝트를, 《한국연구재단》은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출판을 각각 지원했습니다.

정부도 EAI를 믿고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통일부》는 “한반도 국제포럼”의 국내외 행사 및 “한-아일랜드 평화협상 경험 공유” 회의를 지원했습니다. “대미공공외교발전방안” 연구, “통일한국의 외교비전과 동아시아의 미래” 국제회의, “한국 중장기 외교전략의 평가 및 발전방안” 컨퍼런스, “코리아 스토리 프로젝트” 연구와 관련한 재정 지원은 《외교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연구를, 《국무총리실》은 “정부개발원조 중점협력국 재조정 방안” 연구를, 《국회사무처》는 “한국 국민 안보인식 변화와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를 각각 지원했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협력” 국제회의를 지원했고, 《국민대 통합위원회》는 “이념갈등 인식조사”를 지원했습니다.

기업 또한 EAI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삼양홀딩스》는 “에픽 영 리더스 컨퍼런스”와 “EAI 영 페스티벌”의 후원기관이고, 《매일유업》은 “소셜 이노베이터” 프로젝트의 후원기관입니다. 《중앙일보》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는 현재 진행 중인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농심》, 《비엠케이 유통》, 《아이엔씨씨코리아》, 《유진투자증권》, 《주원》, 《히든베이호텔》, 《M&M 통운》, 《YBM 시사》 등 유수의 기업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받았습니다. 출범 이래 꾸준히 재정 후원처의 다변화多邊化를 꾀한 EAI는 모범적인 시민사회 비영리 싱크탱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



2015년 4월 W1\* 바자회  
 2015년 8월 후원자 모임  
 2015년 10월 후원자 모임  
 2014년 6월 후원자 모임  
 2015년 4월 후원자 모임



2015년 4월 후원자 모임  
 2014년 4월 W1° 바자회  
 2015년 10월 후원자 모임  
 2014년 12월 후원자 모임

#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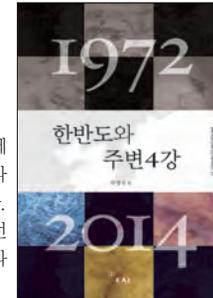
톰슨로이터사社は 생각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연구를 국가라는 소단위를 넘어서는 진정한 지역학으로 승화시킨 영문학술지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세계적 수준의 논문이 게재되는 영문저널을 탐색했습니다. 미국이 아닌 동아시아 지역에서 글로벌 기준을 충족시키는 영문학술지 발행기관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결론은 EAI였습니다.** 2008년 톰슨로이터社는 한국의 민간독립연구기관이 발행하는 영문저널로는 최초로 EAI의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를 사회과학 인용색인의 등재지로 선정했습니다.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는 국내 연구기관이 발행하는 사회과학 인용색인 등재지 가운데 가장 높은 영향력 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는 한국을 대표하는 동아시아지역학 영문학술지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사회과학 영문저널로 자리잡았습니다.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는 2006년부터 한국연구재단 국제학술지 발행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그 출판을 지원받았습니다. 2015년까지 린라이너Lynne Rienner 출판사에서 발간됐던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는 2016년부터 세계적인 출판사인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사 Cambridge University Press에서 발간됩니다.

EAI 책에는 EAI의 문제의식, 아이디어,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과거의 EAI 단행본이 정치학 분야 학술연구의 성격이 강했다면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학제간 연구 및 정책 중심의 성과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판**



하영선 이 책은 2013년 2학기 EAI 사랑방을 수강한 학생들이 베이징으로 답사 여행을 하면서 배우고 느끼고 경험했던 이야기를 담고 있다. 140여 년 전 박규수의 사랑방이 개화파 젊은 지식인의 살아 있는 교육의 장이었던 것처럼, EAI 사랑방은 오늘날 젊은이들이 기성 교육에서 배우지 못하는 이 시대의 생생한 지식을 전파하고 있다.

하영선 이 책은 스페인 발바오의 구겐하임미술관에서 만난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에서 시작됐다. 그는 고향인 영국 동요크셔의 월드게이트 숲을 아홉 대의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해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함으로써 캔버스에 입체적으로 담아내는데 성공했다. 이처럼 한반도와 주변을 둘러싼 국제정치도 제각기 다른 이해를 가진 당사자들의 시선에 집중해 살펴본 다음, 이들을 다시 하나의 장면으로 종합해 보여줌으로써 행위자와 맥락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이해의 지평을 열고자 한다.



사랑방의 젊은 그들 베이징을 폼다 : EAI 사랑방 학생들의 베이징 답사 여행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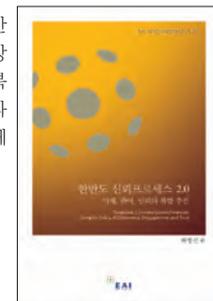
1972 한반도와 주변4강 2014

사회적 책임, 사회적 기업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2.0 : 억제, 관여, 신뢰의 복합 추진



하영선 EAI는 억제·관여·신뢰를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한국의 신뢰프로세스 2.0, 비핵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건설하는 북한의 병진노선 2.0, 주변국들의 동아시아 신질서 건축구상 2.0을 복합적으로 결합시키는 새로운 공동연구를 시작했다. 이 책은 그 첫 결실로, “신대북 정책 제안 : 신뢰프로세스의 진화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준비했던 초고를 정부 당국자 및 국내외의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을 거쳐 남북한 악순환의 돌파구를 새롭게 찾아보려는 정책 제안을 완성한 것이다.



서재혁, 장웅석, 정재관 기업의 일상적인 이윤추구활동이 사회적 발전과 개발을 독려하고 현실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보다 더 큰 가치가 만들어지며, 이것을 기업과 사회가 공유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기업의 사회공헌이 실행된다. 이것이 자본주의를 재건하고 혁신과 성장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도록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 EAI 연구진

**국가안보패널 “동북아 데탕트-탈냉전 비교연구” 연구팀** 2012.11-2014.12

하영선\* EAI, 강윤희 국민대,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마상윤 가톨릭대,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손병권 중앙대, 손열 연세대, 신범식 서울대, 이동률 동덕여대, 이승주 중앙대, 전재성 서울대, 조동준 서울대

**중견국외교연구패널** 2013.1-2015.4

이숙중\* 성균관대, 구민교 서울대, 김상배 서울대, 김성진 고려대 그린스쿨대학원, 손열 연세대, 이동률 동덕여대, 이승주 중앙대, 이응욱 고려대, 전재성 서울대

**신대북정책연구팀** 2013.7-2014.5

하영선\* EAI, 박원근 한동대, 전재성 서울대, 조동호 이화여대

**르네상스 2.0 연구팀** 2013.8-현재

김병국\* 고려대, 김선혁 고려대, 배진석 EAI, 이응욱 고려대, 이응균 고려대, 정주연 고려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연구팀** 2013.9-2014.12

손열\* 연세대, 박종희 서울대, 이응욱 고려대, 이정환 국민대, 전재성 서울대

**BBC 공동 17개국 국제 평판조사 연구팀**

2013.12-2014.3

정한울\* EAI, 김보미 EAI, 정원철 EAI

**글로벌스캔 공동 24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제여론조사 연구팀** 2013.12-2015.12

서재혁\* 사회적기업연구소, 김보미 EAI, 이내영 고려대, 이영동 소셜밸런스, 이현우 사회적기업연구소, 장용석 연세대, 정재관 고려대, 정한울 EAI, 조희진 사회적기업연구소

**소셜이노베이터 연구팀** 2014.1-2014.12

김병국\* 고려대, 김보미 EAI, 장진호 연세대, 정재관 고려대

**통일한국 연구팀** 2014.1-2017.12

주형민\* 고려대, 김병국 고려대, 정원철 EAI, 최영준 고려대, 최우선 국립외교원, 황태희 연세대

**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 켄론NPO 공동연구팀**

2014.5-2015.8

이숙중\* 성균관대, 김보미 EAI, 손열 연세대, 전재성 서울대, 정원철 EAI, 정한울 EAI

**ODA 중점협력국 재조정 방안 연구팀**

2014.6-2014.11

김선혁\* 고려대, 김종일 동국대, 김태균 서울대, 송지연 서울대, 유재승 EAI, 이경민 고려대, 임원혁 KDI

**코리아스토리 프로젝트 연구팀**

2014.7-2014.12

손열\* 연세대, 이숙중 성균관대, 이승주 중앙대, 전재성 서울대, 차문중 KDI

**중국연구모임** 2014.8-현재

정주연\* 고려대, 곽주영 연세대, 백우열 성균관대, 여유경 경희대, 원재연 연세대, 이승호 고려대, 정선욱 서강대, 정유선 한국외대, 정종필 경희대, 정지현 이화여대, 조문영 연세대, 진세정 이화여대, 최은경 한국외대

**2014 엘리트 이념인식조사 연구팀**

2014.11-2014.12

이숙중\* 성균관대, 김보미 EAI, 유민이 EAI, 정원철 EAI

**국가안보패널 “중장기 미중관계 전망과 한반도”**

연구팀 2014.12- 현재

하영선\* EAI, 김상배 서울대, 김헌준 고려대, 박영준 국방대, 배영자 건국대, 손열 연세대, 신범식 서울대, 신성호 서울대, 이동률 동덕여대, 이승주 중앙대, 이왕희 아주대, 이응욱 고려대, 전재성 서울대, 황지환 서울시립대

**한일관계 프로젝트 연구팀** 2015.4-2015.8

하영선\* EAI, 손열 연세대, 이숙중 성균관대, 이원덕 국민대, 전재성 서울대, 정재정 서울시립대

**시카고국제문제학회 · 켄론NPO · Horizon Research**

**한미중일 공동인식조사 연구팀**

2015.4-2015.10

이숙중\* 성균관대, 김보미 EAI, 정한울 EAI

**한국 중장기 외교전략 연구팀**

2015.6-2015.10

손열\* 연세대, 마상윤 가톨릭대, 전재성 서울대

**대규모 ODA 프로젝트 사후관리 실태평가 연구팀**

2015.7-2015.11

박형중\* 성균관대, 강민아 이화여대, 김태균 서울대, 이경선 성균관대, 이숙중 성균관대, 임주영 성균관대, 조민호 성균관대, 주지에 성균관대, 홍윤미 고려대

**한-아일랜드 평화협상 경험 공유 연구팀**

2015.7-2015.11

정한울\* 고려대, 신원환 EAI, 유재승 EAI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 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 연구팀** 2015.5-현재

이내영\* 고려대, 강원택 서울대, 김석호 서울대, 문명재 연세대, 오숙희 고려대, 윤인진 고려대, 이정남 고려대, 한준 연세대, 황정미 고려대

별표(\*)는 각 연구팀의 연구책임자를 나타냄

## 연구보고서

## (국문)

- 정한울 “여론으로 본 2014 정국 전망” (2014. 1. 6)  
鄭韓爾 “輿論导向与2014年韩国政局” (2014. 2. 13)
- 손열 “미중데탕트와 일본 : 1972년 중일국교정상화 교섭의 국제정치” (2014. 2. 17)
- 이승주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21세기 외교전략 : 보통국가의 다차원화” (2014. 2. 17)
- 김애경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공산당의 변화된 역할” (2014. 2. 24)
- 정한울 “고공행진 대통령 지지율의 함정” (2014. 2. 28)
- 김성배 “미중시대 북한식 국제정치 독해 : 자주외교 불패 신화의 유산” (2014. 3. 27)
- 박병광 “국제질서 변환과 전략적 각축기의 미중관계 : 중국의 전략적 입장과 정책을 중심으로” (2014. 3. 27)
- 이동률 “1972년 중국의 대미 데탕트 배경과 전략” (2014. 3. 27)
- 하여선 “북한 1972 진실 찾기 : 7·4 공동성명의 추진과 폐기” (2014. 3. 27)
- 마상윤 “적敵에서 암묵적 동맹으로 : 데탕트 초기 미국의 중국 접근” (2014. 4. 28)
- 신중호 “중국의 대외정책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2014. 4. 28)
- 손병권 “오바마 행정부 등장 이후 미국의 대중정책 : 아시아 공존의 상호인정과 지속되는 긴장” (2014. 5. 13)
- Young-Sun Ha “Beyond Trustpolitik on the Korean Peninsula” (2014. 5. 30)
- 김영진 “중국의 대외정책과 기업-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2014. 6. 30)
- 이장원 “중국 대외정책과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 대외정책 전개의 새로운 조력자” (2014. 6. 30)
- 전재성 “한국의 동아시아 지역전략과 한반도 전략의 현황과 과제” (2014. 7. 31)
- 조동준 “데탕트 국면에서 박정희 행정부의 선택” (2014. 7. 31)
- 강윤희 “미중 데탕트와 소련 : 국제정세 인식과 대응” (2014. 8. 26)
- 신범식 “러시아 신新동방정책과 동북아 지역정치 : 지역 세력망 구도변화와 러시아의 가능성 및 한계” (2014. 8. 26)
- 이장남 “중국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인터넷 여론의 역할 : 제3차 북한 핵 실험을 중심으로” (2014. 9. 30)
- 손열 “공생과 번영의 동아시아 다자질서 구축 전략 :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넘어서” (2014. 12. 24)
- 정한울 “국정지지율로 본 2014년 평가와 2015년 정국 전망” (2014. 12. 30)
- 정한울 “KOREAN VIEWS 2014 : 달라진 한국의 위상과 대외인식의 딜레마” (2015. 1. 20)  
Han Wool Jeong “KOREAN VIEWS 2014: Changes in South Korea’s Status and Dilemmas of Foreign Perceptions” (2015. 4. 22)
- 정한울 “경고등 들어 온 3년 차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 (2015. 3. 4)
- 정한울 “국정소통의 4대 성공조건” (2015. 3. 20)
- 정한울 “세월호 참사 1주기 진단 : 저신뢰 넘어 불신사회 진입 기로” (2015. 4. 7)
- 정한울 “외주민주의 시대의 선거 여론조사” (2015. 5. 26)
- 정한울 “한일 상호인식에 대한 오해와 관계개선 솔루션 찾기” (2015. 6. 15)  
Han Wool Jeong “Misunderstandings in the Mutual Perceptions of Citizens from South Korea and Japan and Finding Solutions for Improving Relations” (2015. 6. 26)
- 정한울 “세대로 본 19대 대선구도 예측 요인 : 균형인가? 쏠림인가?” (2015. 7. 1)
- 정한울 “통일대박론에 대한 지지 약화와 모멘텀 재점화의 방안” (2015. 7. 7)  
Han Wool Jeong “The Deterioration of Support for the Unification as a ‘Bonanza’ Idea and a Way to Reignite Momentum” (2015. 9. 7)
- 정한울 “데이터 콘텐츠의 외주화 현상과 문제점 진단” (2015. 8. 3)
- 정한울 “주류-비주류 프레임으로 본 19대 대선구도 예측” (2015. 8. 4)
- 정한울 “2단계two stage 선거경쟁 이론으로 본 차기 대선구도” (2015. 8. 4)
- 하여선, 손열, 이숙중, 이원덕, 전재성, 정재정 “신시대를 위한 한일의 공동 진화” (2015. 8. 28)
- Karl Friedhoff, Dina Smeltz “강력한 동맹관계, 분열된 여론 : 한미중일 공동 인식조사” (2015. 10. 22)

## (영문)

- Sangbae Kim “Roles of Middle Power in East Asia: A Korean Perspective” (2014. 1. 29)
- Yong Wook Lee “Korea’s Strategy for Regional and Global Financial Governance: From Rule Taker to Rule Setter?” (2014. 9. 30)
- Sangbae Kim “The Inter-network Politics of Cyber Security and Middle Power

- Diplomacy: A Korean Perspective" (2014. 10. 2)
- Sungjin Kim "South Korea's Climate Change Diplomacy: Analysis Based on the Perspective of 'Middle Power Diplomacy'" (2014. 10. 16)
- Seungjoo Lee "Multilayered World Order and South Korea's Middle Power Diplomacy: The Case of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2014. 10. 28)
- Min Gyo Koo "East Asian Maritime Disputes and South Korea's Middle Power Diplomacy" (2014. 11. 27)
- Yul Sohn "The Role of South Korea in the Making of a Regional Trade Architecture: Convening, Bridging, and Designing FTA Networks" (2014. 11. 28)
- Chaesung Chun "East Asian Security and South Korea's Middle Power Diplomacy" (2014. 12. 3)
- Dong Ryul Lee "China's Perception of and Strategy for the Middle Powers" (2014. 12. 8)
- Andrew F. Cooper "Recalibrating Middle Power Diplomacy: The Changing 'Soft Power' Brands of Republic of Korea and Canada in Comparative Perspective" (2015. 2. 23)
- Sungjin Kim "Policy Recommendation for South Korea's Middle Power Diplomacy: Climate Change" (2015. 2. 27)
- Dong Ryul Lee "Policy Recommendation for South Korea's Middle Power Diplomacy: South Korea-China Relations" (2015. 2. 27)
- Seungjoo Lee "Policy Recommendation for South Korea's Middle Power Diplomacy: Development Cooperation" (2015. 2. 27)
- Yong Wook Lee "Policy Recommendation for South Korea's Middle Power Diplomacy: Finance" (2015. 2. 27)
- Scott Snyder "U.S. Rebalancing Strategy and South Korea's Middle Power Diplomacy" (2015. 2. 27)
- Min Gyo Koo "Policy Recommendation for South Korea's Middle Power Diplomacy: Maritime Security Policy" (2015. 3. 6)
- Yul Sohn "Policy Recommendation for South Korea's Middle Power Diplomacy: Trade" (2015. 3. 10)
- Sangbae Kim "Policy Recommendation for South Korea's Middle Power Diplomacy: Cyber Security" (2015. 3. 12)
- Chaesung Chun "Policy Recommendation for South Korea's Middle Power Diplomacy: East Asian Security" (2015. 4. 10)

- Eun Kyong Choi "Globalization, Development Strategies and Social Welfare for the Rural Sector in China since the 2000s" (2015. 4. 14)
- Sook-Jong Lee, Chaesung Chun, Hyejung Suh, and Patrick Thomsen "Middle Power in Action: The Evolving Nature of Diplomacy in the Age of Multilateralism" (2015. 4. 30)
- Kyung-young Chung "Debate on THAAD Deployment and ROK National Security" (2015. 10. 26)

### EAI 이슈브리핑

- 하영선 "북한 2014 미로 찾기 : 신년사의 해석학" (2014. 1. 27)
- Young-Sun Ha "Prospects for North Korea 2014: Hermeneutic Interpretation of the New Year's Address" (2014. 2. 26)
- 河英善 "寻找迷宫的出口 : 对北韩2014年新年贺词的分析" (2014. 2. 20)
- 정원철 "국민들의 대기업 불신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 (2014. 2. 28)
- 정한울 "반기업 정서의 결정요인 : CSR과 정치변수의 영향력" (2014. 2. 28)
- 이원덕 "헤이그 한미일 정상회담과 한일관계 개선의 출구 모색" (2014. 3. 31)
- Won-Deog Lee "No Way Out?: The Trilateral Summit in the Hague and its Implications to South Korea-Japan Relations" (2014. 4. 15)
- 李元德 "韩美日首脑海牙峰会与韩日关系的发展" (2014. 6. 9)
- 전재성 "헤이그 한미일 정상회담 : 미국의 세계전략 조정과 한국의 선택" (2014. 3. 31)
- Chaesung Chun "Allied with a Declining Hegemon? South Korea's Choices in the Washington-Seoul-Tokyo Triad" (2014. 4. 10)
- 全在盛 "韩美日首脑海牙会谈 : 美国全球战略的调整与韩国的选择" (2014. 5. 20)
- 정원철 "EAI · 일본言論NPO 공동 동아시아 지역 갈등과 민간외교의 역할" (2014. 4. 4)
- 김보미 "BBC 17개국 자유에 대한 인식조사" (2014. 4. 8)
- 하영선 "아시아 공진질서 건축의 새 장을 열자" (2014. 7. 8)
- Young-Sun Ha "Building a New Coevolutionary Order in Asia" (2014. 7. 10)
- 河英善 "开启亚洲共进秩序的新篇章" (2014. 8. 29)
- 김보미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평가와 사회적 기업화 전략" (2014. 8. 29)
- 정한울 "세계가 본 17개 파워국가의 국가 이미지" (2014. 12. 31)
- 정한울 "한국이 본 세계와 세계가 본 한국의 국가이미지" (2014. 12. 31)

## 인턴

강연수 서울대	박건 서울대	에카트리나 모자에바 조지타운대	정주영 고려대
강윤지 국민대	박규현 연세대 국제대학원	엘리자베스 버리스 연세대 국제대학원	정창섭 경희대
구희상 숭실대	박미란 서울대 국제대학원	우희량 고려대 국제대학원	조가희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권윤진 고려대	박민주 고려대	원나영 숙명여대	조민 스미스칼리지
기욤 다리어 서울대 국제대학원	박성준 필립스엑시터아카데미	유한 성균관대	조희연 한국외대
김낙연 서울국제학교	박소영 와세다대	윤신영 고려대	주진영 패러컷 고등학교
김다영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박연경 서울대 국제대학원	윤재원 카네기멜론대	주창욱 성균관대
김민걸 한양대	박재훈 호주국립대	윤준형 터프츠대	차선영 고려대
김선경 파리정치대	박정준 일리노이아어바나삼페인대	이규현 필립스아카데미-앤도버	천송이 숙명여대
김성경 워싱턴대	박혜진 오벌린칼리지	이소정 캘리포니아어바인대	최다은 맨체스터대
김수안 캘리포니아-버클리에	반주영 보스턴칼리지	이승신 한국외국인학교	최보경 고려대 국제대학원
김수진 아이오와대	반지현 오클라호마주립대	이에신 한국외국인학교	최수인 고려대
김승완 캘리포니아-샌디에고대	벤 포니 서울대 국제대학원	이에원 연세대 국제대학원	최예원 성균관대
김신현 연세대	변선영 고려대	이윤종 초트르즈메리홀	최원영 펜실베이니아대
김은미 고려대 국제대학원	비온 링스타드 서울대	이정현 서울대	최윤병 연세대
김재연 서강대	사이먼 고다트 랄-가톨릭대	이정현 한국외국인학교	최일식 웨스트우드 고등학교
김재원 이화여대	서준표 우드베리포레스트스쿨	이준수 보스턴대	크리스토퍼 캐로더스 하버드대
김정은 이화여대	서창교 고려대	이지민 연세대 국제대학원	까셀 분 서울대
김지영 세인트폴 고등학교	송윤희 연세대	이채리 미들버리칼리지	한기재 콜롬비아대
김진영 고려대	신민철 한국외국인학교	이태신 한국외국인학교	한빛나 이화여대
김태영 가천대	신예나 이화여대	이현정 에모리대	한수정 한국외국인학교
김태형 뉴욕대	신원식 조지워싱턴대	임서현 한국외국인학교	허예청 서울대 법학대학원
김태환 고려대	심예지 숙명여대	장유진 매켈리스트칼리지	현정희 콜롬비아대
김하경 한국외국인학교	안수지 한국외국인학교	장현진 베이징대	호영진 고려대
김혜지 캘리포니아-로스앤젤레스대	안지혜 동국대	전영현 에든버러대	황세정 숭실대
김효빈 연세대	알렉산더 거슨 존스홉킨스대	정가영 서울대	황은지 연세대
노가연 시카고대	알렉스 반 빅 서울대 국제대학원	정다솜 이화여대	
마이클 파커 모나쉬대	에릭 앤더슨 캘리포니아-샌디에고대	정상락 모나쉬대	

EAI 펠로우즈

2013-2014

**성 딩** 펜실베이니아블룸버그대

Sheng Ding "Chinese Soft Power and Public Diplomacy: An Analysis of China's New Diaspora Engagement Policies" (2014. 4. 1)

**매튜 샤피로** 일리노이공대

Matthew A. Shapiro "International Collaboration and Green Technology Generation: Assessing the East Asian Environmental Regime" (2014. 11. 20)

**피오나 얍** 호주국립대

Fiona O. Yap "Citizens' Response to Government Corruption: Experimental Evidence from Australia, Singapore, and the United States" (2014. 5. 26)

**이지영** 아메리칸대

Ji-Young Lee "Historicizing China's Ris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of East Asia" (2014. 12. 18)

**카 쟁** 아칸소대

Ka Zeng "Domestic Politics and U.S.-China Trade Disputes over Renewable Energy" (2014. 5. 20)

2014-2015

**알렉산더 듀칼스키** 더블린아일랜드국립대

Alexander Dukalskis "Northeast Asia and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Causes and Consequences of Normative Disposition" (2015. 4. 8)

**류용욱** 호주국립대

Yongwook Ryu "The 'History Problem', Domestic Audience Costs, and Public Support in Japan" (2015. 5. 4)

**오승연** 브린모어칼리지

Seung-Youn Oh "Convenient Compliance: China's Industrial Policy Staying One Step Ahead of WTO Enforcement" (2015. 5. 13)

**알렌 칼슨** 코넬대

Allen Carlson "China Transnationalized?" (2015. 5. 15)

**로즈메리 풋** 옥스퍼드대

Rosemary Foot "East Asian Perceptions of the Obama Administration's 'Rebalance' Towards Asia" (2016 발표 예정)

- 손열 “2015년 한일관계 : 기시와 박정희의 유산을 넘을 수 있나” (2015. 1.30)  
Yul Sohn “Korea-Japan Relations in 2015: Can Kishi and Park Chung Hee’s Legacies Be Overcome?” (2015. 8. 5)  
孙悦 “韩日关系2015年：能否超越朴正熙与岸信介的遗产?” (2015. 4. 28)
- 하영선 “김정은의 ‘토정비결’ : 신년사 바로 읽기” (2015. 2. 11)  
Young-Sun Ha “Reading Kim Jong Un’s Fortune through the North Korean New Year’s Address” (2015. 7. 8)  
河英善 “金正恩의 ‘新年运势’ : 正确解读新年贺词” (2015. 5. 19)
- 조세영 “한일관계 타개 방안 : 정상회담과 위안부 문제의 분리대응” (2015. 2. 24)  
赵世映 “韩日关系改善方案 : 首脑会谈和慰安妇问题相分离的方法” (2015. 4. 29)
- 강태웅 “한일 문화교류는 지속되어야 한다 : ‘험한’ 嫌韓을 넘어서” (2015. 3. 24)  
姜泰雄 “韩日文化交流不可停断 : 战胜 ‘嫌韩’ 情绪” (2015. 6. 11)
- 이정환 “3년 차에 들어서는 아베노믹스 : 정책운용의 빛, 정책내용의 그림자” (2015. 4. 22)  
李政桓 “ ‘安倍经济学’ 第三年 : 施政的光芒与内实的阴影” (2015. 7. 14)
- 박영준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과 아태지역 안보질서 전망” (2015. 6. 2)  
Young-june Park “Revisions to the Guidelines for U.S.-Japan Defense Cooperation and Prospects for the Asia Pacific Security Order” (2015. 8. 19)  
朴荣濬 “美日新版 ‘防卫合作指针’ 与亚太安全秩序” (2015. 7. 28)
- 이숙중 “한국도 민주주의 지원에 나서야 한다” (2015. 6. 2)  
Sook-Jong Lee “South Korea Should Take Measures to Support Democracy” (2015. 6. 10)
- 이숙중 “성공적 한미 정상회담을 위하여” (2015. 6. 3)  
Sook-Jong Lee “Towards a Successful ROK-U.S. Summit” (2015. 6. 5)  
李淑鍾 “为了成功的韩美首脑会谈” (2015. 8. 12)
- 하영선, 손열 “아베담화와 8·15 경축사를 넘어서” (2015. 8. 17)  
Young-Sun Ha, Yul Sohn “Moving beyond the Abe Statement and President Park’s Independence Day Speech” (2015. 10. 20)  
河英善, 孙悦 “超越 ‘安倍谈话’ 与朴槿惠 ‘光复节贺词’” (2015. 10. 19)
- 김보미 “박근혜 대통령 광복절 축사, 아베 총리 담화에 대한 한중일 지식인 인식조사” (2015. 8. 28)
- 하영선 “복합화 시대의 동아시아 신질서 구축” (2015. 9. 24)

Young-Sun Ha “The Architecture of the East Asian Order in the Age of Complexity” (2015. 9. 4)

- 조세영 “박근혜-아베의 첫 번째 정상회담, 주요 의제별 대응 방향” (2015. 10. 2)
- Taekyoon Kim “South Korea’s Middle-power Diplomacy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2015. 10. 13)
- Soo-am Kim “Developments in North Korea’s Human Rights Issues and South Korea’s Strategy” (2015. 10. 19)
- Soo-hyung Lee “The U.S. Ballistic Missile Defense Policy in Europe and the Asia-Pacific: Strategic Implications for the ROK-U.S. Alliance” (2015. 10. 26)

### EPIK Journals Online

- Min Seon Ku “Rational Emotions: The Role of Identity and Emotions in Dokdo/Takeshima Dispute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2015. 8. 20)
- Evan Ritli “Unravelling Conventional Boundaries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Classification and Regulation of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in the Modern World” (2015. 8. 20)
- Eun Seo Kim “Leadership in Context of Followership: the Cooperative Role in Addressing the Global Problem of Climate Change” (2014. 8. 22)
- Raphael Kunz “Followership in U.S. Military Interventions in the post-Cold War Era” (2014. 8. 22)
- Hyunsu Lee “The Influence of Followership on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and the Mitig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Climate” (2014. 8. 22)
- Na Young Lee “Followership in International Relations: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2014. 8. 22)

## 후원회원

강명훈	김수진	김형찬	배위섭	원종속	이숙중	장세린	진선희
강은경	김승빈	김희정	백송현	원종애	이승훈	장세형	진재욱
강은모	김시연	김희진	백혜영	유승훈	이시연	장재훈	차국린
강찬수	김연옥	남윤호	서은숙	유재승	이신화	장준혁	차동민
강현욱	김영구	노봉일	서정원	유정석	이여희	장진호	채규민
고병희	김영섭	노호식	서희정	유지영	이영석	장희진	채규호
고승연	김영원	노환길	선승훈	유창수	이영주	전경수	최 건
고혜선	김용규	류재희	성정은	육은경	이원종	전명선	최규남
공성원	김용남	명정모	손대현	윤민영	이인옥	전해진	최동규
공정문	김 원	문지옥	손재기	윤병석	이재섭	정기용	최병규
공창위	김유상	민선식	송기춘	윤영두	이정은	정랑호	최복대
구상환	김유주	민선영	송우엽	윤용집	이정호	정병갑	최종호
구윤정	김은선	박근아	송지연	윤우성	이정희	정석희	최준원
구준서	김은숙	박대균	신권식	윤재훈	이종진	정영진	최철원
권세린	김은영	박미영	신동원	윤정림	이종호	정용화	하형일
김가현	김재두	박사라수현	신명철	윤정선	이주연	정원철	한금현
김건민	김 정	박상민	신보희	윤창민	이주연	정윤석	한상원
김경순	김정섭	박상용	신상화	윤혜성	이종구	정윤희	한상철
김경지	김정은	박석원	신성수	이근우	이지원	정재관	한선호
김광덕	김정은	박선정	신성호	이기호	이지희	정주연	한숙현
김국형	김정하	박성만	신영준	이내영	이창원	정진영	한승혜
김기정	김 준	박수진	신영환	이동훈	이 항	정해일	한일봉
김기준	김지윤	박연호	신준희	이미혜	이해완	정현윤	한정원
김남희	김지태	박영택	심윤보	이민교	이현옥	정현주	한지현
김대영	김 진	박용준	안용찬	이범주	이현희	정현철	허세홍
김동건	김진영	박장호	안정구	이봉재	이호준	조규남	홍성우
김동호	김진혁	박재시	안중익	이상원	이홍구	조규완	홍성원
김만호	김창수	박정섭	안현정	이상호	이홍재	조동현	홍호영
김민규	김태균	박진원	안현호	이상훈	이희정	조은희	황 수
김병국	김한기	박찬근	양호실	이서현	임지순	조현선	황정원
김병표	김현성	박찬희	엄찬섭	이선주	임현모	주영아	황준호
김병희	김현전	박창완	여동찬	이선희	임현진	주진균	W1°
김봉하	김형운	박형민	여현정	이성량	임홍재	주 한	
김상래	김형준	배기욱	우미경	이소민	장동우	지혜리	

## 후원기관

광명특수인쇄

농심

두산엔진

마산

정안과 의원

비엠케이 유통

삼양홀딩스

샤프전자부품

서울밝은세상안과

신신제약

아이앤씨씨코리아

에이치로지스

영화기업

우주유엔드비

유진투자증권

조선내화

지브이피

한일카페트

히든베이호텔

KTB 투자증권

M&amp;M 통운

## 협력기관

국무조정실

국민대통합위원회

국회사무처

매일유업

맥아더 재단

서울대 산학협력단

에스비에스 문화재단

외교부

일본국제교류기금

장경국 재단

주일한국대사관

중앙일보사

통일부

통일준비위원회

한국고등교육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외국인학교

한국인권재단

한샘드뷰연구재단

Genron NPO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Permanent Secretariat of Community of Democracies

University of Pennsylvania

### 1월



- 9일 신년특집 외교안보 현안 라운드 테이블
- 14일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 운영위원회 출범
- 15일 윤덕민 국립외교원 원장 초청 프레스 포럼
- 20일 에즈라 보겔 하버드대 명예교수 초청 스마트 토크
- 23일 리차드 부시 브루킹스 연구소 동아시아센터 소장 초청 스마트 토크

### 2월



- 3일 브라이언 포트 주한미군 국장 초청 유스 포커스 그룹
- 5일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 싱가포르 회의 참석
- 23일 싱크탱크 세계평의회 시드니 지역회의 참석
- 25일 2014년 이사회

▲ 사진 출처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hoto by Peter Morris

### 3월



- 3일 W1° 후원 제1회 EAI 장학생 선발
- 7일 사랑방 공부모임 1학기 개강
- 12일 손열 소장 초청 프레스 포럼
- 24일 라제쉬 탄돈 인도 아시아 참여연구회 소장 초청 스마트 토크
- 31일 에브린 고 호주국립대 교수 초청 스마트 토크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14권 1호 발간

### 4월



- 8일 신성호 서울대 교수 초청 프레스 포럼
- 9일 벳쇼 고로 주한일본대사 초청 지구넷 21 포럼
- 14일 알론 레프코워츠 이스라엘 바르-일란대 교수 초청 스마트 토크

5월



- ▲
- 2일 한국해로연구회 공동주최 “동아시아 해양 분쟁과 해법” 컨퍼런스
- 7일 하영선 이사장 주관 프레스 포럼
- 11일 싱크탱크 세계평의회 뉴욕 연례회의 참석
- 13일 T.J. 펴펠 캘리포니아-버클리대 교수 초청 스마트 토크
- 20일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 미군사령관 방문 간담회  
조지 뱅크스 CSIS 선임연구원 초청 스마트 토크
- 21일 2013 코리아 프렌드십 동창회 발족
- 23일 한반도 국제포럼 베이징 회의
- 27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2.0》 발간

▲ 사진 출처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opyright © 2014 by CFR  
Photo by Don Pollard

6월



- 9일 외교부 공동주최 “통일한 국의 외교비전과 동아시아의 미래” 국제회의
- 10일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 초청 프레스 포럼
- 12일 카 쟁 아칸소대 교수 초청 전문가 세미나
- 23일 KF-EAI 코리아 프렌드십 행사 개시
- 24일 한반도 국제포럼 도쿄 회의
- 26일 사랑방 공부모임 일본 답사
- 27일 피오나 압 호주국립대 교수 초청 전문가 세미나  
국무총리실 주관 “ODA 중점협력국 재조정 방안” 연구용역기관 선정
- 30일 니콜라스 브레이 영국 국방부 국제정책기획국장 방문 간담회

7월



- 2일 미얀마 민주주의 싱크탱크 역량강화 사업팀 양곤 방문
- 8일 KAIST 핵비확산 교육연구센터 장학생 방문 간담회
- 9일 주한미군사령부 공동주최 비공개 라운드 테이블  
토마스 셰퍼 평양주재 독일대사 방문 간담회  
하영선 이사장 주관 프레스 포럼
- 10일 일본 겐론NPO 공동주최 “한일국민 상호인식조사” 기자회견
- 18일 일본 겐론NPO 공동주최 한일미래대화
- 21일 외교부 주관 “Korea Story Project” 연구용역기관 선정
- 31일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14권 2호 발간

8월



- 13일 KF-EAI 넥스트 제네레이션 컨퍼런스  
EPIK 영 리더스 컨퍼런스  
EAI 영 페스티벌

### 9월



- 5일 EAI 사랑방 2학기 개강
- 11일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 타이페이 회의 참석
- 25일 통일부 공동주관 “신뢰, 평화, 번영 : 한반도 통일의 길” 국제회의
- 15일 일레인 번 미국 국방부 핵미사일 방어정책담당 부차관보 방문 비공개 간담회

### 10월



- 8일 신범식 서울대 교수 초청 프레스 포럼
- 15일 추귀홍 주한 중국대사 초청 지구넷 21 포럼 월리스 그레그슨 전 미국 국방부 차관보 초청 스마트 토크
- 17일 중견국 외교포럼 비공개 회의
- 31일 한반도 국제포럼 브뤼셀 회의

### 11월



- 12일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 초청 프레스 포럼
- 13일 “2014 정치사회 엘리트 이념인식조사” 발표 “국민통합을 위한 이념갈등 진단과 국회의 역할 모색” 토론회
- 24일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 공동주최 “Empowering Community of Democracies” 국제회의
- 27일 KF-EAI 코리아 프렌드십 갈라
- 30일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14권 3호 발간

### 12월



- 8일 이지영 아메리칸대 교수 초청 전문가 세미나
- 10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 및 다니엘 러셀 미국 국무부 차관보 초청 한반도 국제 포럼 워싱턴 회의
-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 초청 특별 강연회
- 13일 중국연구모임 라운드 테이블
- 15일 이종헌 UPI 기자 초청 프레스 포럼
- 18일 매튜 샤피로 일리노이공대 교수 초청 전문가 세미나
- 26일 EAI 사랑방 중국 답사

1월



- ▲
- 6일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 초청 프레스 포럼
- 11일 싱크탱크 세계평의회 뉴델리 지역회의 참석
- 19일 브라이언 포트 주한미군 국장 초청 유스 포커스 그룹
- 22일 일본국제연구소 한반도 연구팀 방문 간담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한국경제매거진 공동주최  
“한국 싱크탱크의 국제적 역할 확대” 포럼
- 24일 신년 기획 “한국외교 포지셔닝 전략” 회의

▲ 사진 출처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hoto by Pradeep Kumar

2월



- 16일 2015년 정기이사회
- 25일 조셉 웡 토론토대 교수 초청 라운드 테이블
- 27일 W1° 후원 EAI 장학생 멘토링 캠프

3월



- 2일 W1° 후원 EAI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 6일 EAI 사랑방 1학기 개강
- 11일 서훈 이화여대 교수 초청 프레스 포럼
- 18일 앤드류 네이션 콜롬비아대 교수 초청 스마트 토크
- 22일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 뉴델리 회의 참석
- 31일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15권 1호 발간

4월



- 6일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초청 지구넷 21 포럼
- 15일 차두현 경기도 외교정책 특별자문관 초청 프레스 포럼

5월



- 7일 알렉산더 듀칼스키 더블린아일랜드국립대 교수 초청 전문가 세미나
- 8일 벤 스미스 플로리다대 교수 초청 스마트 토크
- 10일 이숙종 원장 싱크탱크 세계평의회 워싱턴 연례회의 참석
- 14일 이원덕 국민대 교수 초청 프레스 포럼
- 26일 류용욱 호주국립대 교수 초청 전문가 세미나
- 28일 《1972 한반도와 주변4강 2014》 발간
- 29일 일본 겐론NPO 공동주최 “한일국민 상호인식조사” 도쿄 기자회견

6월



- 2일 알렌 칼슨 코넬대 교수 초청 전문가 세미나
- 5일 《사회적 책임, 사회적 기업》 발간
- 9일 오승연 브린모어칼리지 교수 초청 전문가 세미나
- 16일 찰스 헤이 주한영국대사 방문 간담회
- 21일 일본 겐론NPO 공동주최 한일미래대화 도쿄회의

7월



- 1일 브루스 덕슨 조지워싱턴대 교수 초청 중국연구ويم 비공개 라운드 테이블
- 8일 하영선 이사장 주관 프레스 포럼
- 스캇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 방문 간담회
- 20일 에릭 월시 주한캐나다대사 방문 간담회
- 24일 한국해로연구회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공동주최 “해양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전망과 과제” 컨퍼런스
- 31일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15권 2호 발간

8월



- 9일 SBS 스페셜 “남북청년통일실험 : 어서 오시라요 (통일한국 통합방안 연구 (2014-2017 결과물)” 방송
- 12일 EPIK 영 리더스 컨퍼런스
- 27일 미얀마 시민사회 역량강화 양곤 제1차 워크샵
- 28일 특별보고서 “신시대를 위한 한일의 공동진화” 발간

9월



- 4일 EAI 사랑방 개시
- 7일 아인질 오도노휴 주한아일랜드대사 방문 간담회  
KF-EAI 코리아 프렌드십 행사 개시
- 9일 김근식 경남대 교수 초청 프레스 포럼 한국고등교육재단 공동주최 “한일수교 50년, 한일관계의 재조명” 세미나
- 14일 미얀마 시민사회 역량강화 양곤 제2차 워크샵

10월



- 4일 싱크탱크 세계평의회 이스탄불 지역회의 참석
- 5일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 공동주최 “한미동맹” 시카고 세미나
- 6일 아시아소사이어티 공동주최 “한미경제협력” 샌프란시스코 세미나
- 7일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초청 프레스 포럼 KF-EAI 넥스트 제네레이션 컨퍼런스
- 20일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 건론NPO, 중국 HRCG 공동주최 “한미중일 상호국민인식조사” 도쿄 기자회견 및 국제세미나
- 21일 외교부 공동주최 “한국 중장기 외교전략의 평가 및 발전방안” 컨퍼런스
- 26일 더블린시립대 공동주최 “한-아일랜드 평화협상 경험 공유” 비공개 세미나
- 28일 그래험 플래처 호주 외교통상부 제1차관보 방문 간담회
- 29일 KF-EAI 코리아 프렌드십 갈라 및 EAI 영 페스티벌

11월



- 1일 세계민주주의운동 제8차 대회 “Empowering Civil Society for Democracy and Its Renewal” 섹션 패널 참석
- 5일 양귀빈 펜실베니아 대학 교수 초청 중국연구모임 라운드 테이블
- 13일 통일부 및 통일준비위원회 공동주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협력” 국제회의
- 30일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15권 3호 발간

12월



- 28일 EAI 사랑방 중국 답사



박미영 행정팀장, 안현정 선임연구원, 벤자민 엔젤 연구원, 김가현 대외협력팀장, 이숙중 원장, 서희정 연구원, 신영환 외교안보팀장, 유재승 연구원, 백혜영 사무국장, 최수이 연구원, 배진석 커버넌스팀장, 김보미 연구원

EAI.or.kr



Facebook.com/EAIorkr



Youtube.com/EAIorkr



Twitter.com/EAI\_2002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909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을지로4가, 삼풍빌딩) 전화 02 2277 1683 팩스 02 2277 1684/1697 / [www.eai.or.kr](http://www.eai.or.kr)